

# 2023년 중앙도서관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학술정보운영과 김은정, 김희원

## 1. 들어가는 말

2023년 3월, 중앙도서관은 2023년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고 도서관 소장 자료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1996년 중앙도서관에서 개최했던 귀중도서전 이후 27년 만에 열리는 중앙도서관 고문헌 특별 전시이자, 서울대학교 대표 작가의 문학 작품들을 최초로 망라하는 전시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전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입생 비상전의 전시 구성 내용과 함께 주요 추진 과정을 살펴보고, 본 전시의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 전시 개요

- 전시명: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 전시 기간: 2023. 3. 14.(화) ~ 5. 19.(금)
- 전시 장소: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

## 2. 전시 구성

이번 전시는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근대 문학 자료의 양과 질의 탁월함을 많은 이들에게 선보이기 위하여 그 내용을 더욱 다채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시 대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게 메인 세션, 갤러리월, 현대서 비치 코너, 전시 키오스크 코너로 전시 공간을 연출하였다.

### 가. 메인 세션

메인 세션은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문헌 100여 점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공간이자, 서울대 대표 작가 27인의 주요 작품 35점이 한자리에 전시된 공간이다. 한국 근대 시와 소설, 한국 근대 문학잡지, 서울대인의 문학이라는 세 파트로 구성하였으며, 각 파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메인 세션별 세부 내용**

메인 세션	내용
1. 서울대 도서관 소장서로 보는 한국 근대 시와 소설	1908년 신체시의 등장에서부터 1950년대 전후 문학까지 약 50여 년간 전개된 한국의 근대문학사를 중앙도서관 고문헌으로 재구성해 보여주었다. 초판본 시집 26점을 포함해 약 60여 점의 자료가 출품되었다.
2. 서울대 도서관 소장서로 보는 한국 근대 문학잡지	1908년 잡지 「소년」의 발행 이후 근대식 종합지가 출현하고 문학잡지가 분화되며 신문사 발행 대중지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중앙도서관 고문헌을 통해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창간호 잡지 20점을 포함해 약 40여 점의 자료가 출품되었다.
3. 서울대인의 문학 한국 현대 시와 소설	신입생이 알아두어야 할 서울대 문인의 계보와 그 작품을 소개하였다. 이 계보는 12명의 시인과 15명의 소설가로 구성되어 있다. * 시인 12인: 정한모, 황동규, 김지하, 마중기, 김광규, 정희승, 이성복, 황지우, 김정환, 최영미, 이수명, 심보선 * 소설가 15인: 전광용, 박완서, 최일남, 최인훈, 손장순, 서정인, 이청준, 김승옥, 이인성, 김영현, 최수철, 주인석, 김소진, 권여선, 김탁환

## 나. 갤러리월

전시 개최 장소인 관정관 관정마루의 측면 벽을 활용한 갤러리월은 책 표지와 책 속의 삽화, 문인들의 손글씨를 액자화하여 비치한 공간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찬찬히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또한 본 전시가 신입생을 위해 마련된 만큼, 서울대 대학신문에 게재된 서울대 공동체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념시와 현대 문단의 작가들이 후배를 위해 조언한 글들을 패널로 제작해 설치하였다.

**표 2 갤러리월 세부 내용**

메인 세션	내용
1. 저자 증정본 속 문인들의 손글씨	중앙도서관 가람문고와 백사문고는 저자 증정본의 보고로서, 이들 문고에 소장된 저자 증정본을 가려 뽑고 해당 책 속 문인들의 손글씨를 추려 캘리그라피 40여 점을 전시하였다. 여기에는 정지용, 이광수, 신석초, 신석정, 박목월, 이청준, 김지하 등의 손글씨가 포함되어 있다.
2. 책 속의 작은 미술관	한국 근대 출판문화의 역사는 책이 문학과 미술의 결합체로 인식되는 과정이었다. 책 속의 시각문화 발달사를 보여주기 위해 1920년대 나혜석부터 1960년대 장욱진까지 9명의 화가가 그린 표지 그림과 삽화를 액자화해서 전시하였다.
3. 서울대학교 공동체 기념시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적힌 정희승 시인의 시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은 1971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기공식에서 발표된 것이다. 이 작품을 비롯해 서울대 공동체의 역사를 대표하는 기념시를 소개하였다.
4. 신입생과 후배에게 주는 글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한국 현대 문단의 위대한 작가들이 후배를 위해 직접 조언을 해준 글들이 실려 있다. 신입생의 대학 생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박완서, 이청준, 황동규 작가의 글을 선별해 소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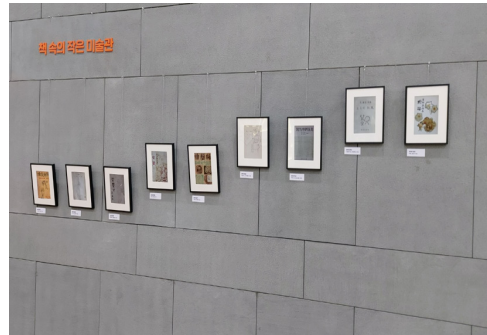
### 다. 현대서 비치 코너

서울대 출신 작가들을 포함한 50여 명의 주요 작가들의 도서 중, 중앙도서관 소장 도서의 최근 5년간 대출 순위를 조사해 1위부터 3위까지를 선정하여 현대서 비치 코너를 구성하였다. 도서 선별은 학술정보운영과 장서관리 운영 부서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현대서 비치 코너에는 전시를 관람한 관람객이 도서를 편안하고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하였으며, 도서 대출이 바로 가능하도록 자동대출기도 함께 설치하였다.

메인 세션



갤러리월



현대서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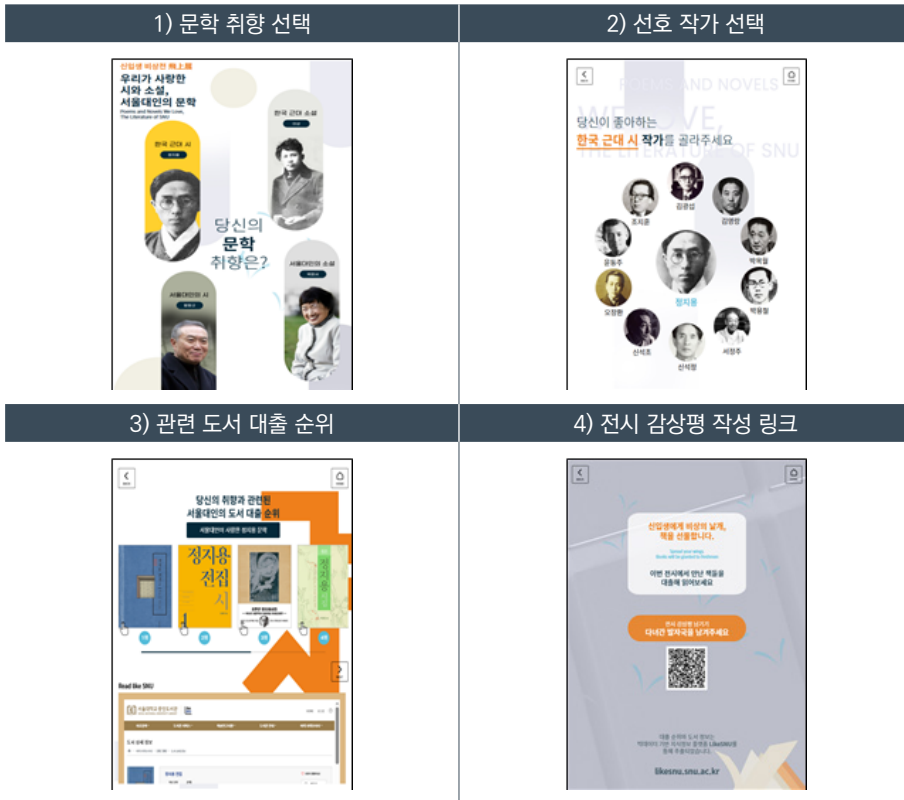
그림 1 파트별 전시 구성

## 라. 전시 키오스크

전시 관람이 마무리되는 공간에는 인터랙티브 페이지 화면이 제작된 전시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관람객의 관심을 이끌고 참여가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였다. 인터랙티브 페이지의 첫 페이지에서 개인의 문학 취향(한국 근대 시 / 한국 근대 소설 / 서울대인의 시 / 서울대인의 소설)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이어서 해당 분야의 작가를 선택한다. 이후 중앙도서관 빅데이터 기반 지식정보 플랫폼 LikeSNU를 통하여 해당 작가의 대표 도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시 감상평을 남길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여, 전시 관련 피드백 등 관람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표 3** 전시 감상평 일부

번호	작성 내용
1	전시 재밌어요! 서울대 구성원으로 부딪힘을 느끼고 갑니다 :)
2	앞으로도 많은 전시회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3	지난 고등학교 시절, 서울대에서 꼭 공부하겠다는 다짐으로 읽어 왔던 수많은 시와 소설의 다수가 서울대인의 문학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읽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비상전에 들르셔서 날개 달고 가세요!



**그림 2** 인터랙티브 페이지 각 화면

### 3. 주요 추진 과정

본 전시에는 「정지용 시집」 초판본(1935)을 포함하여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1948) 등 한국 근대 시집 희귀본 초판본 총 26점, 1920~1950년대 간행 소설 총 23점, 한국 근대 문학잡지 창간호 20점이 출품되었다. 또한 1940년대 학번인 전광용 작가의 「흑산도」부터 1980년대 학번인 심보선 시인의 「눈앞에 없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서울대인 문인 계보 속 소설가 15명과 시인 12명의 대표작이 전시되었다.

서고 깊숙이 보존되어 있던 이들 자료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공개될 수 있었는지, 아래에서는 전시의 주요 추진 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 가. 전시자료 선정

전시 대상 자료 선정을 위해 먼저 선본(善本)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다. 한국 근대문헌과 서울대 작가의 작품이라는 큰 틀 아래, 고문헌자료실 소장 자료를 비롯해 연간물자료실과 단행본자료실의 소장 자료를 조사하였다. 모든 조사 대상 자료의 표지와 출판 유통이력이 담긴 판권지를 촬영하였으며, 청구기호, 서명, (편)저자, 발행정보(발행일, 발행처, 발행지), 장정정보, 언어, 크기, 책수, 디지털화 여부, 보존 상태를 조사해 기록하였다.

1 등록번호	2 서명		3 청구기호	4 서명	5 (편)저자			
	㉠ 표지	㉡ 출판 유통 이력						
10100318637			가람 811.73 561s	석초시집	신석초(1909~1975) 저			
6 발행정보			7 장정정보	8 언어	9 크기	10 책수	12 디지털화	13 보존상태
발행일	발행처	발행지		국한문세로쓰기	21 x 15 cm	1	미완	양호
1946.6.30.	출유문화사	한국						
			장정 김윤준					

그림 3 선본 조사 양식

1) 전시 준비의 전 과정에 대한 각 업무 분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시 기획, 출품작 최종 선별, 패널 및 해제 원고 작성 및 최종 검수: 김수진 학예연구관  
 - 출품작 선별 및 해제 원고 작성, 전시 연출: 김은정 선임주무관  
 - 해제 원고 작성 및 교열: 정아름 선임주무관  
 - 출품작 보존처리: 강지은 주무관  
 - 기초 자료 조사 및 패널 도안 작성: 김희원 실무관

‘장정정보’에는 표지 디자인 및 서명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경우 해당 화가(작가)명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갤러리월의 ‘책 속의 작은 미술관’ 파트를 구성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었다. 또한 ‘언어’의 경우 큰 대문헌의 과도기적 성격을 고려하여 가로쓰기와 세로쓰기 판별도 함께 기재하였다.

선본 조사는 자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자료의 보존 상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자료의 층해, 낙장,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호, 보통, 훼손’으로 구분하였으며, 훼손 상태인 자료가 전시자료로 선정된 경우 전시 출품 전 보존처리 과정을 거쳤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시장 비치를 위한 자료 약 140종, 갤러리월 구성을 위한 자료 약 60종의 선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본 조사에는 상당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약 200종의 선본 조사 결과는 전시 대상 및 예비자료 선정, 전시 세션 구성 등 전시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 나. 전시자료 해제 작성

전시 대상 및 예비자료 선정 후, 각 자료의 해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작성한 해제는 네임택 형식으로 제작하였는데, 네임택은 전시 출품작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시 구성품 중 하나이다.

신입생 비상전 네임택의 경우 [저자, 서명, 출판사, 출판 연도(판사항), 자료 소개]의 내용을 담았다. 중앙도서관의 대다수 소장 자료는 해제(解題)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 따라 자료 소개글은 고문헌 기획연구 부서에서 관련 문헌<sup>2)</sup>을 참고해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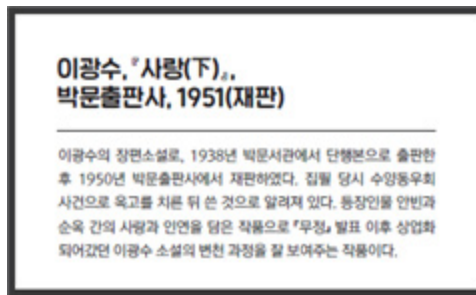


그림 4 네임택 예시

### 다. 진열장 제작

중앙도서관은 전시용 진열장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 전시를 위한 진열장 제작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시 대상 선본의 수량, 크기 등을 고려해 자료에 특화된 맞춤형 디자인 진열장을 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디자인 시안 구성부터 설계, 제작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제작 업체와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업체와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중앙도서관에서 요구하는 바가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문화재청 (2009). 근대화유산 문헌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8). 전광용과 백사문고.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진열장 제작 시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진열장 크기 및 디자인은 전시 대상 자료의 특징(근대문헌, 현대서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것
- 전시 공간인 관정관 관정마루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제작할 것
- 진열장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관리 및 유지보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 및 제작할 것

위 사항을 고려하여 총 세 종류의 진열장을 제작하였으며, 자료가 전시된 실제 전시장 활용 모습은 다음과 같다.

구분	진열장 활용 모습	제작 수량
조감형 진열장		5개
책장형 진열장		3세트
현대서 진열장		2개

그림 5 제작 진열장 활용 모습

## 라. 전시 홍보물 제작

신입생 비상전을 개최한 3월은 학기 초인 만큼 다양한 학내 행사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에 ‘신입생 비상전’이라는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전시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여러 전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먼저 전시주제를 효과적이고 독창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서체, 색채 등을 조합하여 전시 포스터 제작이 이루어졌다. 전시 내용과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포스터 디자인을 활용해 현수막, 가로등 배너, 초청장, 리플릿 등의 홍보물 제작을 이어나갔다.

특히 지하연에서 학생회관으로 이어지는 도보는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이 점을 십분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구성원들에게 홍보하고자 해당 길목에 있는 가로등을 활용해 10여 개의 가로등 배너를 거치하였다.

포스터	리플렛
 <p>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Poems and Novels We Love, The Literature of SNU</p> <p>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23.03.14. — 23.05.19.</p>	 <p>신입생 비상전 飛上展 Freshmen, Let Your Dreams Fly High</p> <p>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Poems and Novels We Love The Literature of SNU</p> <p>23.03.14. — 23.05.19.</p> <p>신입생 비상전 飛上展 Freshmen, Let Your Dreams Fly High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unity's Beautiful Flight</p> <p>The 2023 Freshmen is pleased to have SNU community to share the beautiful flight and to meet about the future. Each SNU member has a great one memory that they will cherish for the rest of their lives. Remember the feeling books of the beautiful flight, and it will be a lifetime memory for you. In an attempt to share the memorable and happines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we have set up a display from the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ents the exhibition "Poems and Novels We Love" The exhibition will be held in the Student Center for the whole day of your arrival and to build upon the tradi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p> <p>We hope this will be a valuable opportunity for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be able to meet with the rest of this exhibition, which presents the wings of books to freshmen.</p> <p>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aehyeon Chang</p>
 <p>신입생 비상전 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23.03.14. — 23.05.19.</p> <p>GATE 5 5층</p>	 <p>신입생 비상전 飛上展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p> <p>2023년 3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장 덕 진</p> <p>제작자: 장 덕 진 2023년 3월 14일(화) 오후 7시 00분 제작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중앙도서관 전시기간: 2023년 3월 14일(화) ~ 5월 19일(금) 전시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중앙도서관 *각 층에 배너를 부착하는 것은 30까지 전시 관람객이 증가합니다.</p>

그림 6 주요 전시 홍보물



## 마. 보도자료 배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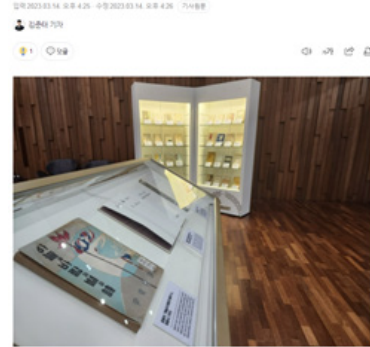
신입생 비상전 개막과 본 전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대 기획처 홍보팀을 통하여 개막 전인 2023년 3월 10일 자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SNU NOW,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등 학내 여러 채널을 통해 전시 정보를 게시하여 신입생 비상전 개최 소식을 학내외에 널리 알리 고자 하였다.

### 서울대 중앙도서관, 신입생비상전(飛上展) 개최



**그림 7** 서울대 중앙도서관,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개최 (한국대학신문, 2023. 3. 10.)

### '서울대 신입생 비상전-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전시



**그림 8** '서울대 신입생 비상전-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전시 (연합뉴스, 2023. 3. 14.)

## 바. 대형 현수막 게시

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홍보할 때 보통 인문대 또는 자연대 방향의 도서관 터널과 관정관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다. 이번 신입생 비상전 역시 이 세 곳을 이용해 현수막을 게시하였는데, 전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중앙도서관 본관 건물을 이용한 대형 현수막 제작을 추가로 기획하게 되었다. 대형 현수막은 가로 약 22m, 세로 약 11m의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본관 2층 및 3층 외부 벽면 중앙에 설치하였다. 제작된 현수막은 행정관 방향으로 설치하여, 도서관 건물 바깥 멀리서도 전시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도서관을 방문하는 이용자들에게 전시 관람을 유도하는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되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 및 사무 공간의 채광을 고려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 도서관 이용 환경을 유지하였다.



그림 9 신입생 비상전 대형 현수막

## 사. 전시 개막식 개최

신입생 비상전 개막식은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 3시 중앙도서관 관정관 관정마루에서 개최되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 김성규 교육부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윤영호 기획부총장, 권영민 명예교수, 호원숙 대표(박완서 작가 유가족), 총학생회장, 도서관 직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개막식을 빛냈다. 축사에서 유홍림 총장은 이번 전시가 신입생들을 문학의 세계로 인도하여 공감 능력을 함양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시 개최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어서 권영민 명예교수와 장덕진 중앙도서관장이 따뜻한 격려와 환영사를 전달하고, 김성규 교육부총장이 총학생회장에게 기념 액자를 수여하였다. 또한 호원숙 대표가 신입생 대표 학생 두 명에게 박완서 작품집을 선물로 전달하였다. 이후 참석자들은 김수진 학예연구관의 전시 해설을 들으며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막식 행사는 다채로운 구성 아래 마무리되었다.

## 아. 전시 확대 공개 운영

신입생 비상전 개최 장소인 관정관은 외부인 출입이 불가하여, 전시 개막 당시에는 외부인의 전시 관람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중앙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4월 10일부터 전시 종료 시까지 일반인에게 전시를 확대 공개하였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전시 관람을 운영하였으며, 사전 접수에 한하여 1일 3회 전시 해설을 진행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속 교육청 및 구청에 전시 공개 운영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여 전시 공개를 홍보하였다. 외부 관람객들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한 QR 코드를 스캔하여 방문자 출입증을 발급받아 관정관에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한 달여간의 공개 기간 동안 약 400명의 일반인이 방문하였으며 여러 학교와 단체 관람도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飛上展**

**신입생 비상전에 초대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초대의 글**

서울대학교는 중앙도서관의 풍부한 학술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근대문학 최초 출판 특별전시 '신입생 비상전 - 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을 일반인에게 공개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 및 학생 등 누구나 서울대학교 교정에 방문하시어, 우리 교문현의 향기와 서울대 문학의 자취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앙도서관이 소장한 한국 근대 시집 초판본 등 근대문학 100여권이 최초로 공개되고 서울대 대학원 학기 27명의 주요 작품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전시 문헌과 연계된 도서의 대출 순위를 조사해 상위 도서를 추천하여 읽어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푸르른 봄날, 많은 분들의 관람을 기대합니다.

○ 근대문학 대표 전시도서  
윤동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초판본, '경지용 시집, 초판본, 서정주 '귀족도' 초판본, 영성섭 '삼대', 초판본, '시와 소설, 장간호, '가톨릭청년', 장간호

○ 서울대인의 문학 대표 전시도서  
박완서 '나목', 김지하 '황토', 이창준 '당신들의 천국,

**관람 안내**

<b>일시</b>	4.10 (월) - 5.19 (금) 09:30-17:30 * 10시, 14시, 16시 전시 개장	기간 중 무료
<b>장소</b>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관공관 2층	1층에서 방문권 수령
<b>관람대상</b>	인근 지역주민 및 학생	무료 관람
<b>신청방법</b>	[개인 신청] 입회 가능 관람 [단체 QR 코드]를 통한 관람 신청	10인 ~ 30인 단체

단체 관람 신청 QR

그림 10 신입생 비상전 일반인 공개 홍보물



그림 11 전시장 전경

#### 4. 후속 작업

두 달여간 진행한 전시를 종료한 후, 전시 종료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고문헌자료실 열람 공간에 상설전시 코너를 구성하여 주요 전시자료를 비치하였다.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전시자료의 일부만을 비치할 수 있었지만, 고문헌자료실을 찾는 이용자들이 신입생 비상전의 여운을 함께 느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은 공간을 마련하였다.

자료의 보존상태를 고려하여 비치자료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였으며, 권영민 문고 설치 기념전(2023. 10. 25. ~ 12. 15.) 종료 후, 현재는 권영민 문고 전시 출품작도 함께 전시 중이다.



그림 12 고문헌자료실 상설전시 코너

## 5. 남은 과제

중앙도서관에는 현재 상설전시 공간이 부재함에 따라 전시 공간을 선정하는 데 있어 관정관 관정마루는 유일한 선택지였다. 이에 진열장 제작부터 갤러리월 구성 등 전시 연출 시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이 관정마루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를 개최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탓에 더 많은 자료가 전시에 출품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중앙도서관에 상설전시 공간이 마련되기 전까지 앞으로의 전시가 관정마루에서 진행된다면, 전시 때마다 본관 4층 고문헌자료실에서 관정관으로의 진열장 이동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문 이동업체를 통해 진열장 이동 및 비치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미세한 흠집, 균열 등까지 방지할 수는 없다.

이에 상설전시 공간 마련이라는 과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전시를 위한 제반 환경이 갖추어진 곳에서 중앙도서관의 우수한 장서들이 널리 공개되기를 바란다.

## 6. 의의

신입생 비상전은 외부 기관의 자료대여 없이 온전히 중앙도서관 소장서를 통해 한국 근현대 문학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중앙도서관이 보유한 한국 근대 문학 희귀본 자료를 최초로 선보이는 자리이자, 전광용, 박완서, 최인훈, 황동규 등 서울대 대표 작가의 작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민 전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전시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서울대학교의 과거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며, 격변하는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서울대인이 이룩한 눈부신 문학 성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과제를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하였다.

본 전시가 우리나라 최대 근대문헌 소장기관으로서 중앙도서관의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는 발판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내외적으로 의미 있는 전시를 개최하여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우수성과 탁월함을 많은 이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재우 (2023. 3. 19.). 중앙도서관 〈신입생 비상전〉 개최. 대학신문. 출처: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810>
- 김준태 (2023. 3. 14.). '서울대 신입생 비상전-우리가 사랑한 시와 소설, 서울대인의 문학' 전시. 연합뉴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13734?sid=102>
- 문화재청 (2009). 근대문화유산 문화분야 목록화 조사 연구 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8). 전광용과 백사문고. 서울: 서울대학교.
- 이정환 (2023. 3. 10.). 서울대 중앙도서관, 신입생 비상전(飛上展) 개최. 한국대학신문. 출처: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4320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23). 출처: <https://encykorea.aks.ac.kr/>